

# 성인의 이름매력도가 자기효능감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김기승, 함혜수, 나혁진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 The Effect of Adult's Name Attractiveness on Self-efficacy and Emotionality

Ki-Seung Kim, Hae-Soo Ham, Hyeok-Jin Na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본 연구는 성인 남녀의 이름매력도가 자기효능감과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0대부터 30대까지 남녀 300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수집과정에서 누락된 설문지와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5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변인에 따른 이름매력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와 학력이 낮을수록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불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름매력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2=.382$ 로 모형의 설명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beta=.322$ ,  $t$ 값이 9.276,  $p<.001$ 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름의 매력도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름매력도가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  $R^2=.412$ 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은 41.2%를 보였다.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 통계적 변인을 통제하고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  $\beta=.326$ ,  $t$ 값이 6.408,  $p<.001$ 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름의 매력도는 정서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름의 매력도가 행복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실증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개명을 통해서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자주 볼 수 있다.

**주제어** : 이름, 성인, 매력, 자기효능감, 감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name attractiveness on self-efficacy and emotional awareness in adult men and wom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00 males and females in their 10s and 30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However, 250 copies, excluding missing questionnaires during the collection process and incomplete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name attractiveness according to factors, the lower the age group and the lower the academic level, the more dissatisfied they were with their names. Besides, the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name attractiveness on self-efficacy showed that the model's fitness was  $R^2=.382$  and the model's explanatory power was somewhat inferior, but  $\beta=.322$ ,  $t$ -value 9.276,  $p<.001$  were show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so name attraction directly affects self-efficacy. And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name attractiveness on emotionality turned out to be  $R^2=.412$ . The regression analysis, which controls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age, and academic leve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beta=.326$ ,  $t$ -value 6.408,  $p<.001$ . In other words, the name attractiveness affects emotional awareness. There is no empirical study that the name attractiveness can improve happiness or the quality of life, but it seems often among athletes that names are enhanced by the past.

**Key Words** : Name, Adult, Attractiveness, Self-efficacy, Emotionality

Received 03 January 2020, Revised 10 January 2020  
Accepted 20 January 2020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Professor, Departmen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1738-1916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저성장과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의 해소와 개명을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도 있다는 희망으로 이름의 개명신청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의 통계정보에 의하면 2019년 한해 개명을 신청한 사람의 수가 16만 2989명, 즉 하루에 500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신청하였다[1]. 이름이 지니는 함축적 의미는 과거나 현재의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름의 함축적 의미나 느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이름에 대한 선호도에는 고정관념(name stereotype)이 작용하고 있다한다(2003, 이보영)[2]. 이러한 이름 고정관념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정보가 이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이름은 다방면에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Erwin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그는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이나 사회적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이름 고정관념을 갖게 되고 그러한 이름에 따라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Erwin, 1999)[3]. 이와 같이 이름 고정관념은 자신의 개인적, 사회적인 관계에서 개인의 경험들을 형성시키고 만족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Buchanan & Bruning, 1971; Lawson, 1971; McDavid & Harari, 1973)[4].

우리나라 경우에는 작명에 매우 신중하고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은 편이다. 지명도가 높은 이름을 얻기 위해서 유명한 작명소를 찾아 임신출세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는 이름에 대해서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름이 좋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자신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반면에 잘못된 이름으로 팔자가 바뀌게 되고 평생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그만큼 이름이 지니고 있는 가치는 그 사람을 대표함은 물론이고 행운과 불행을 가져다주기도 하고, 일생을 좌우할 정도로 이름이 가지는 가치는 높게 평가를 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개명(改名)은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법원에 개명의 신청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개명 허가율도 2000년 79%에서 2001년 83%로 2010년 88%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신적으로만 생각하였던 기존의 이름 고정

관념이 학문적으로 접근되면서 관사에게도 개명이 논리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개명(改名)의 사유를 보면 이름의 의미가 나쁜 경우 사람 이름의 발음이 저속하거나 흉악범과 유사한 경우, 성명 철학 상의 이유[5] 등이 있으며 이들 각각의 허가율 79%, 80.30%, 71%, 67.40%이며 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법원행정처, 1994). 최근에는 TV 프로그램에서 이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최첨단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인터넷의 확산으로 정보화사회로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작명소를 찾아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좋은 이름관 관련된 서적 출판도 증가하고 있다. 김석미(2002)[6]는 내담자(남자/여자)이름 매력도에 의한 상담자의 이름의 매력도를 분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남/여)들이 스스로 평가한 자신의 이름에 대한 매력도를 분석하고 이름의 매력도가 자기효능감과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이름의 의미

이름이란 성(姓) 아래에 붙여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명칭으로 넓게는 성과 이름을 모두 합쳐 이름이라고도 한다. 이름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한국 중세어에서 ‘일흠’ 또는 ‘일흠’ 등으로 표기되어 오다가 ‘이르다(謂)나 ‘말하다’는 뜻을 가진 옛말 ‘닐다’에서 출발하여 ‘닐흠-일흠-이름’으로 바뀐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2002)[7]. 이름은 사람이 삶의 시작과 동시에 불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부르기 편하게 지었던 이름에 한자가 유입되면서 한자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름에는 아명(兒名)·관명(冠名)·자(字)·호(號)·시호(諡號) 등의 여러 형태가 있다.

서양인의 이름에는 first name, middle name, last name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personal name으로 아동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의 중심적 역할을 하며 한국의 ‘명(名)’에 해당한다. 세 번째는 family name으로 한국의 ‘성(姓)’에 해당한다. personal name은 christian name(세례명) 또는 given name으로 부르기도 한다(박영수, 1997; 이규현, 1986)[8]. 11세기 이전의 영국사회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이름만이 있었

다. 그 당시 영국인들은 이크네임(ekename: 지금의 닉네임)으로 불렸다. 지금은 성으로 쓰이는 돌리틀(Dolittle), 롱펠로우(Longfellow) 등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성들이 이크네임에서 유래되었다. 영국의 경우 세례명의 선정과정에서 목사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지만,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등의 국가보다는 보다 더욱 자유롭다. 세례명에 추가하여 중간 이름을 넣어 2개의 실명을 가지는 관습은 독일에서 시작되었다. 집안을 자랑하기 위하여 모계(母系)의 성을 나타내기도 하고, 같은 이름의 사람과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2002).

한국인의 성명 정보 처리에 관한 연구에서 성(姓)과 이름(名)이 단일한 정보 단위인지 별개의 정보 단위인지를 검토한 결과 성(姓) 단서 조건보다 이름(名) 단서 조건에서 더 높은 기억을 보였다(노혜선, 박광배, 1992)[9]. 즉, 성(姓)과 이름(名)이 별개의 정보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성(姓)은 가문과 지연의 영향을 받아 왔다. 본 연구에서는 성(姓)과 이름(名)에서 성(姓)을 포함하여 실문을 실시함으로써 성과 이름의 어울림 효과를 고려하였다.

##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은 Bandura(1977)[10]의 사회 학습이론에서 출발한 것으로, 애매모호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행동을 잘 조직하고 이행할 수 있는 개인의 판단능력이라고 정의되는데, 이는 개인의 건강과 에너지, 긍정적 신념, 문제 해결의 기술 혹은 사회적 기술 등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내적인 대처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이것은 결국 성취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의 경우 환경적 어려움에 직면할 때 자신의 잘못이나 과제의 어려움에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자신의 능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가진단이기에 자기관련 인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관련 인지를 다루는 것은 자기애의 핵심적 속성들을 밝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 중에서 이원희(2001)[11]는 외현적 자기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고, 내재적 자기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낮았다고 하였다. 또

한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등의 상태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애경, 2009)[12]. 또, 내재적 자기애와 우울은 정적 상관을 보이고 있었는데(한수정, 1999)[13], 이에 내재적 자기애의 주요한 특성인 취약성에 있어 자기효능감이 매개변인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인지적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기효능감은 진행 중인 행동은 물론이고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인간이 선택을 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오래 인내할 수 있는지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Bandura & Schunk)[14]는 이러한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성취 경험, 대리 경험, 언어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의 4요소를 말하며 이들 4가지 요소 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성취경험이라고 주장한다(백성훈, 2001)[15].

## 2.3 정서인식

William James가 '정서(Emotion)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이래 정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16]. Lang(1968)은 정서는 상태, 표현, 경험 등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정서는 원래 정서 상태에서 유래된 개념으로 신체 또는 생리적인 변화들의 미하는 정서의 신경학적인 측면이다. 정서표현은 감정적 자극에 의해 중추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관찰 가능한 외형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17].

Dodge와 Garber(1991)[18]는 정서가 크게 신경-생리적 수준, 주관적-체험적 수준, 행동-표현적 수준에서 상호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고, Izard(1993)는 정서를 유발하는 기제로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19]. 신경체계의 신경 전달물질의 변화, 뇌 구조의 활동으로 인한 정서 활성화, 감각운동 체계에서 근육운동, 피부감각에서 나타나는 정서 활성화, 동기체계에서 생리적인 추동상태에 관여하는 감각과정에 의한 정서 활성화, 인지체계에서 평가와 귀인으로 인한 정서의 활성화 등을 말한다. Reeve(1992)[20]는 정서를 생리적, 인지-주관적, 기능적, 표현적 요소가 결합된 심리적 구조라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를 종합해 볼 때 정서는 생리적, 인지적, 행동적, 체험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은 관련성이 높고,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 김경희(1995)[21]는 정서란 어떤 대상 혹은 상황을 지각하고 그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수반하는 복합적인

상태로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정서(emotion), 정동(affect), 기분(mood), 감정(feeling) 등이 정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정서와 감정을 동일한 것으로 여겨 혼용하였으나 지금은 정서란 여러 가지 감정 상태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을 의미한다(김미경, 1998)[22]. 정서는 유기체를 통하여 정서유발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을 보여 최종적으로 유기체를 보호하고, 개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서능력을 키우며, 심리적 안녕과 대인관계에서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유주현, 2000; 이주일, 1998; Clore, 1994; Kring et al. 1994)[23]. 상담이론에서도 정서의 개념과 역할을 중요시하고 있다.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론가에 따라 정서의 역할과 작용을 다양하게 보았다(정명화 외, 2005). 프로이드는 정서를 일종의 심리적 에너지로 보고 공격적이고 본능적으로 추동(drive)의 과생물로 보았다. 심리학자들은 자아와 정서의 분화정도가 자아발달의 강점과 약점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중요한 치료적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정서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Sandler(1978)는 정서란 추동의 결과보다는 자아와 내적 대상에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행동주의 이론에 의하면 정서는 공포와 불안은 그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 3. 연구방법

#### 3.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10대부터 30대까지 남녀 300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유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집과정에서 누락된 설문지와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5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3.2 연구대상

##### 3.2.1 이름매력도

이름매력도에 대한 측정은 김석미(2001), 김하정(2003), 유영희(2003) 등의 연구가 있으나 이들의 경우 특정 졸업사진의 이름을 보여주었고 좋은 이름을 고르게 한 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평가하여 전혀 매력이 없음(1점), 매력이 없음(2점), 보통이다(3점), 조금은 매력적임(4점), 아주 매력적임(5점)으로 구분하여 Likert 5점 척도로 이름매력도를 구했다. 이름매력도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713의 Cronbach's  $\alpha$  값을 보여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 3.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 척도는 Sherer와 Maddux(1982)가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에 입각하여 제작한 것으로 2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혜진(2003)의 연구에서 요인 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자기효능감(generalself-efficacy) 혹은 성취 자기효능감' 17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social self-efficacy)' 6문항을 얻어냈다. 본 연구에서는 성취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통합하여 자기효능감으로 명명하였으며 자기효능감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768의 Cronbach's  $\alpha$  값을 보여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 3.2.3 정서인식

정서인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수정과 이훈구(1997)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특질 초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를 사용하였다. TMMS는 Mayer와 Gaschke(1988)의 연구를 기초로 Salvey 등(1995)이 개발한 정서지능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원래 이 척도는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수정과 이훈구(1997)의 노력으로 TMMS의 연구에 정서에 대한 주의(attention)(5문항), 정서인식의 명확성(clarity)(11문항), 정서개선에 대한 기대(repair)(5문항)가 추가되었으며 총 문항도 21문항으로 수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1개 문항을 정서인식으로 명명하였으며 정서인식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 .802의 Cronbach's  $\alpha$  값을 보여 신뢰성은 확보되었다.

#### 3.3 분석방법

분석방법은 SPSS for Windows 21.0을 사용하였다. 첫째,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을 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름매력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F검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상관분석과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름매력도가 자기효능감과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4. 분석결과

###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성별로는 여성 53.6%(134명), 남성 46.4%(116명)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10대 45.6%(114명), 20대 29.2%(73명), 30대 25.2%(63명)로 나타났다. 학력에서는 대졸 58.0%(145명), 대졸이상 22.4%(56명), 고졸이하 19.6%(4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of survey subject

	Division	Number of people	Frequency (%)
Gender	Female	134	53.6
	Male	116	46.4
Age	10s	114	45.6
	20s	73	29.2
	30s	63	25.2
Academic level	Below high school graduation	49	19.6
	A college graduate	145	58.0
	A college graduate or higher	56	22.4

### 4.2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이름매력도 차이

#### 4.2.1 성별에 따른 이름매력도 차이

성별에 따른 이름매력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자 3.02±.73, 여자 2.95±.71로 나타나 남자가 지각하는 이름매력도가 여자들이 지각하는 이름매력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수준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ifferences in name attractiveness by gender

Male	Female	F
M±SD	M±SD	-5.014**
3.02±.73	2.95±.71	

\*\* p<.01, \*\*\* p<.001

#### 4.2.2 연령에 따른 이름매력도 차이

연령에 따른 이름매력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0대 3.06±.81, 20대 2.99±.73, 10대 2.76±.78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불만족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의수준 p<.0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Differences in name attractiveness by age

10s	20s	30s	F
M±SD	M±SD	M±SD	33.802***
2.76±.78	2.99±.73	3.06±.81	

\*\*\* p<.001

#### 4.2.3 학력에 따른 이름매력도 차이

학력에 따른 이름매력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졸이상 3.11±.73, 대졸 2.82±.81, 고졸이하 2.74±.79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불만족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유의수준 p<.01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Differences in name attractiveness by academic level

고졸이하	대졸	대졸이상	F
M±SD	M±SD	M±SD	114.212**
2.74±.79	2.82±.81	3.11±.73	

\*\* p<.01, \*\*\* p<.001

### 4.3 상관관계분석

이름매력도가 자기효능감과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피어선 상관분석의 결과 자기효능감과 정서인식은 이름매력도에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Table 5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1	2	3
emotionality	1		
self-efficacy	.486**	1	
name attractiveness	.472**	.546**	1

\*\* p<.01

<Table 6> The effect of name attractiveness on self-efficacy

Division		Non-stand factor	Stand factor(β)	t-value	sig.(p)
Control var.	C	3.437	-	11.406	.000
	Gender	.174	.089	1.944	.053
	Age	-.016	-.020	-.296	.768
	Academic level	-.200	-.113	-1.635	.004
Indep. var.	name attractiveness	.322	.409	9.276	.000***

dependent var. self-efficacy,  $R^2=.382$  F=23.438, \*\*\* p<.001

<Table 7> The effect of name attractiveness on emotionality

Division		Non-stand factor	Stand factor(β)	t-value	sig.(p)
Control var.	C	3.551	-	10.499	.000
	Gender	.237	-.121	2.524	.012
	Age	-.021	-.026	-.364	.716
	Academic level	-.211	-.119	-1.625	.105
Indep. var.	name attractiveness	.261	.326	6.408	.000***

dependent var. emotionality,  $R^2=.412$  F=30.442, \*\*\*p<.001

#### 4.4 이름매력도가 자기효능감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

##### 4.4.1 이름매력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름매력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형의 적합도는  $R^2=.382$ 로 모형의 설명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322$ , t값이 9.276,  $p<.001$ 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름의 매력도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4.2 이름매력도가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이름매력도가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Table 7에서 정리하였다.  $R^2=.412$ 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은 41.2%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 통계적 변인을 통제하고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는  $\beta=.326$ , t값이 6.408,  $p<.001$ 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름의 매력도는 정서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 5. 결론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만큼 다양한 이름이 있다.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 꽃이 되었다”는 김춘수의 시구

처럼,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가리킨다. 지난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다면 최근에는 본인이 원하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005년 11월 대법원이 이름에 대한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한 이후부터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이 성인 남녀 중에서 자기 이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력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이름의 매력도가 자기효능감과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도권에 거주하는 10대부터 30대까지 남녀 300명을 모집단으로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유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수집 과정에서 누락된 설문지와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250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의 결과 성별에 따른 이름매력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남자  $3.02 \pm .73$ , 여자  $2.95 \pm .71$ 로 나타나 남자가 지각하는 이름매력도가 여자들이 지각하는 이름매력도보다 더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이름매력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30대  $3.06 \pm .81$ , 20대  $2.99 \pm .73$ , 10대  $2.76 \pm .78$ 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불만족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학력에 따른 이름매력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대졸이상  $3.11 \pm .73$ , 대졸  $2.82 \pm .81$ , 고졸이하  $2.74 \pm .79$ 로 나타나 학력이 낮을수록 자기 이름에 대해서 불

만족이 높은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름매력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2=.382$ 로 모형의 설명력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beta=.322$ ,  $t$ 값이 9.276,  $p<.001$ 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름의 매력도는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름매력도가 정서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  $R^2=.412$ 로 나타나 모형의 설명력은 41.2%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 통계적 변인을 통제하고 실시한 회귀분석의 결과,  $\beta=.326$ ,  $t$ 값이 6.408,  $p<.001$ 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름의 매력도는 정서인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름의 매력도가 행복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실증연구는 아직 없다. 그러나 개명을 통해서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운동선수들 사이에서는 자주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프로야구에서도 개명한 선수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개명해 성공한 선수'로 불리는 대표적인 선수는 바로 롯데 자이언츠의 외야수 손아섭이다. 이외 다수의 선수가 있지만 개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References

- [1] Daily news(<https://www.dailysecu.com>)
- [2] B. Y. Lee, Student's First Name Stereotypes and Teacher's Evaluation of Student,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 University, 2003.
- [3] Erwin, P. G., Attractiveness of First names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Psychology, Vol.133, No.6, pp.617-620, 1999.
- [4] Buchan, B. A. and J. L. Bruning, Connotative meanings of first names and nicknames on three dimension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Vol.85, pp.143-144, 1971.
- [5] <http://www.namehelp.co.kr>
- [6] S. M. Kim, Counselor Ratings of Client on Attractiveness of First Nam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 University, 2002.
- [7] Doosan Encyclopedia
- [8] Y. S. Park, Confucius also used a business card, Seoul: Eulyu Cultural History, 1997.
- [9] H. S. Noh, K. B. Park, Information Processing of Korean Names,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92, No.1, pp.93-101, 1992.
- [10]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Vol.84, pp.191-215, 1977.
- [11] W. H. Lee, The Relationship of Narcissism, Perfectionism, Hostility and Self-effica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2001.
- [12] A. K. Lee, A Study on Factors of Stress and Stress Coping Styles According to Self-efficacy,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angmyung University, 2009.
- [13] S. J. Han, Overt and Covert Self-Relevant Cognition of Narcissis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 [14] Bandura, A. & D. H. Schunk, Cultivating competence, self-efficacy and intrinsic interest through proximal self-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1, pp.586-598, 1981.
- [15] S. H. Bak,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life-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f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2001.
- [16] M. W. Cheong, S. M. Park, The path Analysis of variables Effecting Major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ling, Vol.5, No.1, pp.95-114, 2004.
- [17] J. H. Lee, Q. H. Shin, S. B. Lee, The Effect of Burnout in the Casino Industry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Hotel Management, Vol.21, No.3,

pp.103-118, 2012.

- [18] Dodge, K. A., & J. Garber,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19] Izard, C. E, Organizational and motivational functions of discrete emotions. In M. Lewis & J. M. Haviland (Eds.), Handbook of emotions, New York: Guilford, 1993.
- [20] Reeve, J., Understanding motivation and emotion, Orlando: Harcourt Brace Jovanovich, 1992.
- [21] K. H. Kim, What is sentiment?, Seoul: Minumsa, 1995.
- [22] M. K. Kim, The Effects of Emotional Attention, Clarity on Emotional Restoration, and Negative mood Control Expectations on Helping Behavior,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 University, 1998.
- [23] J. H. Yo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mpathy for Emotional Expression and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Eelfare,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00.

김 기 승(Kim, Ki-Seung)



- 2011년 2월 : KICU대학원졸업(교육학박사)
- 2014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졸업 (직업학박사)
- 2005년 3월~2011년 4월 KICU대학원 교수
- 2012년 3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상담, 성명학
- E-Mail : kbs4984@hanmail.net

함 해 수(Ham, Hae-Soo)



- 2009년 2월 : 경기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동양철학석사)
- 2015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동양학박사)
- 2010년 3월~현재 :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명리학 교수
- 2016년 3월~2019.2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진로직업상담, 직업심리, 교육심리, 성명학
- E-Mail : ham396@hanmail.net

나 혁 진(Na, Hyeok-Jin)



- 2000년 2월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문학사)
- 2004년 2월 : 시드니공과대학 정보기술학과 (Graduate Diploma)
- 2017년 2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국학과 (국학석사)
- 2017년 3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명리학, 정보처리기술, 교육학
- E-Mail : peter750504@naver.com